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1월 3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작황 양호…생산량 5~8% 늘듯-7면(2026.10.23.)	농업디지털센터	농민신문
○	비오면 닫던 창 열었더니…레드향 열과 '뚝' -9면(2026.10.23.)	-	농민신문
○	제주 트리티케일, 사료 적합성 3년간 실증한다-5면(2026.10.26.)	원예작물과	농업인신문
○	감귤박람회 품평회 참여 농가 30일까지 모집-8면(2026.10.28.)	기술지원조정과	서귀포신문
○	서귀포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워크숍-1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서귀포시 4-H연합회-9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독자기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14면(이봉실)	동부농업기술센터	제민일보
○	농업농촌소식-9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일보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6면	기술지원조정과	한라일보
○	우수한 맛과 품질 제주 노지감귤 알린다-3면	-	제주일보
○	노지감귤 생산 증가 전망에 선제 대응-3면	-	제민일보
○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장터서 제주산 우수성 입증-9면	-	삼다일보
○	탐스럽게 익어가는 호박-5면	-	한라일보
○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0면	-	제주일보
○	[기고]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4면(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회장 이석근)	-	제주매일

(농민신문: 2026년 10월 23일)

○ 작황 양호…생산량 5~8% 늘듯-7면

작황 양호…생산량 5~8% 늘듯

산지 확대경 | 노지감귤

생육기 비·일조량 여건 좋아
낙과·열매터짐 피해도 감소

극조생 품위 낮아 시세 주춤
11월 조생종 출하 반등 기대



제주 서귀포농협 정기철 조합장(왼쪽)과 고재우 유통사업본부장(오른쪽), 양영재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감귤지원단장이 서귀포시 토평동 과수원에서 노지감귤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있다.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생육기(8~9월) 비가 알맞게 내렸고 일조량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시세는 극조생종 품위가 다소 낮아 주춤한 상황이다. 그러나 11월 조생종 출하가 본격화하면 가격은 반등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기상 호조로 생산량 5~8% 증가 전망=20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과수원. 11월 중순 수확 예정인 노지감귤이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이곳에서 5289㎡(1600평) 규모로 농사짓는 오창악씨(62)는 "올해 일조량이 풍부해 생육 상태가 매우 좋다"며 "소비가 늘어 농민들이 땀 흘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기철 서귀포농협 조합장은 "올해는 낙과나 열매터짐(열과) 피해가 덜해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이라면서 "공급이 늘더라도 당도가 좋아 가격이 평년 수준 이상이길 바라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제주시지역 작황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중언 하귀농협 경제사업장장은 "일부 극조생종은 산도가 다소 높지만 조생종은 대체로 당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10월 과일 관측'에서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량을 43만3400t으로 예측했다. 전년(41만900t)과 견줘 5.5%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9월8일 내놓은 '2026년 노지감귤 2차 착과상황 관측조사' 결과에서 노지감귤 예상 생산량을 44만3300t으로 추정했다. 전년보다 7.9%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서귀포시지역 해거리 현상으로 최종 생산량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지우 농협경제지주 농산물도매부 상품기획자(MD)는 "올해 제주도 남쪽지역은 열매가 잘 열리지 않는 시기"라면서 "정확한 생산량은 12월쯤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농민, 선별 철저·당도 기준 출하 다짐=산지에선 막바지 생육 관리와 철저한 선별에 힘쓰고 있다. 오씨는 "저품위 출하로 소비자 인식이 나빠지면 피해는 결국 농민이 본다는 공감대가 확산했다"면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산지 스스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김 MD는 "농협경제지주도 철저한 선별을 통해 품질 좋은 노지감귤을 시장에 출하해달라고 산지출하조직을 독려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노지감귤 상품 기준을 2S~2L(가로지름 49㎜ 이상 70㎜ 이하 또는 1개당 무게 53g 이상 135g 이하)로 정하고 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운영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도가 10브릭스(Brix) 이상이면 49㎜ 미만 소과와 70㎜ 초과 대과도 일부 출하할 수 있게 했다.

◆극조생 시세 주춤…"11월 조생종 출하 땐 반등할 것"=21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감귤' 5kg들이 상품 한 상자는 평균 1만594원에 거래됐다. 전년 10월 평균(1만4443원)보다 26.6%, 평년(1만2510원)에 비해선 15.3% 낮다.

오재훈 중앙청과 경매사는 "이달 중순 서귀포지역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내려 극조생종 부패율이 높아진 게 시세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양영재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감귤지원단장은 "1~21일 가락시장 '감귤' 경락값이 5kg 상품 기준 평균 1만3706원이었다"며 "이는 평년 10월보다 9.6%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궂은 날씨로 시세가 다소 하락했지만 11월 이후 고당도 물량이 본격 출하되면 가격은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서귀포=심재웅 기자
daebak@

10. 23.
농민신문 7

(농민신문: 2026년 10월 23일)

○ 비오면 닫던 창 열었더니…레드향 열과 '뚝' -9면

비오면 닫던 창 열었더니 … 레드향 열과 '뚝'

원예특작원 연구 실증농가 현장
시설 환기 늘리고 상하부 관수
발생률 지난해보다 30%P 하락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오른쪽)이 현선미 제주 서귀포 선미네 레드향농장 대표와 함께 '레드향'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있다.

'지난해 9월4일 66개, 올해 9월7일 11개.'

16일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에 자리한 2645㎡(800평) 규모의 만감류 '레드향' 시설하우스. 아직은 초록색인 열매 사이로 종이가 매달려 있다. 종이엔 관찰 날짜와 숫자가 기재됐다. 농장주 현선미씨(62·선미네 레드향농장 대표)가 나무별로 2년간 열매터짐(열과) 피해를 본 과실수를 적은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레드향'은 껍질이 얇아 과실 비대기(8~10월) 고온과 토양수분 변화에 취약하다. 최근 여름철 폭염·열대야·호우 등 이상기상이 심화하며 열매터짐 피해도 늘고 있다. 평년 발생률은 15~20% 수준이지만 2024년에는 38.4%, 지난해엔 30.6%에 달했다.

현씨는 "지난해 여름 멀쩡했던 열매가 하룻밤 사이 갈라지는 일이 반복됐다"면서 "다른 곳에 자리한 2314㎡(700평) 규모 밭은 피해가 너무 커 나무를 모두 베어내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시설하우스의 최종 열매터짐 발생률은 2일 기준 12.8%에 그쳤다. 2025년 같은 시점(35.2%)보다 22.4%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최종 발생률(43.2%)에 견주면 30.4%포인트 하락했다.

비결은 재배환경 변화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가 제시한 대로 우선 시설 내부 더운 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창 개폐 범위를 넓혔다. 지형적으로 이 시설하우스는 주변 밭보다 낮고 특히 북쪽이 막혀 있어 환기가 원활하지 않다.

현씨는 지난해까진 천창을 일부 열었다가 비가 오면 닫았다. 하지만 올 여름부터는 천창 전체를 완전히 개방하고 비가 와도 닫지 않았다. 측창 또한 최대한 걷어올렸고 특히 북쪽 측창은 더 많이 열었다.

관수법도 달리했다. 이전엔 과실에 물 한방울 닿지 않게 토양에 점적 관수했지만 올해는 나무 위아래에서 물을 뿌리는 상하부 관수를 병행했고 매일 오전 20분, 오후 10분씩 전체 20t을 공급했다. 7월초엔 시설하우스 바닥에 흰색 유공 피복재를 깔았다.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덮은 채로도 관수할 수 있는 자재다.

김대현 농진청 원예원장은 "올해 최종 열매터짐 발생률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장 실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열매터짐 경감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정채원 기자

10. 23. 농민신문 9

(농업인신문: 2026년 10월 26일)

○ 제주 트리티케일, 사료 적합성 3년간 실증한다-5면

제주 트리티케일, 사료 적합성 3년간 실증한다

제주농업기술원·서귀포축협 업무협약



제주농업기술원과 서귀포축협이 손잡고 3년간 제주산 트리티케일의 한우 사료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농가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에서 재배한 트리티케일을 한우에게 먹여 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핀다. 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 축협이 농가 보급을 위한 현장 실증을 3년간 추진한다.

제주농업기술원과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은 15일 농업기술원에서 트리티케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배해 만든 겨울철 사료작물이다. 이번에 실증하는 '한영' 품종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땅에 물기가 많아도 비교적 잘 자라는 특성이 있다.

농업기술원이 제주지역에 적합한 '한영'을 선발하고 1헥타르에서 종자 생산을 실증했다. 올해는 종자용 0.4헥타르와 사료용 7헥타르 등 모두 7.4헥타르 실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3년간 매년 10헥타르 규모로 트리티케일 생산과 현장 실증을 추진한다.

10. 26.
농업인신문 5

백종수 bjsoo@nongupin.co.kr

(서귀포신문: 2026년 10월 28일)

○ 감귤박람회 품평회 참여 농가 30일까지 모집-8면

감귤박람회 품평회 참여 농가 30일까지 모집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위원장 고문삼)는 '2026 제주감귤박람회'를 앞두고 감귤품평회 참가 농가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품평회는 조생온주(노지·피복재배)와 친환경재배 2개 부문의 우수 감귤을 발굴해 제주 감귤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자긍심과 영농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농가는 접수 기간 내 지역농협, 감귤농협, 농업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출품 감귤 5kg을 제주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10. 28.
서귀포신문 8

(제주매일: 2026년 11월 3일)

○ 서귀포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워크숍-12면



서귀포시4-H연합회, 청년농업인 워크숍

서귀포시 4-H연합회(회장 오은규)는 1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2026년 서귀포시 4-H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11. 3.
제주매일 12

(삼다일보: 2026년 11월 3일)

○ 서귀포시 4-H연합회-9면



서귀포시 4-H연합회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

서귀포시 4-H연합회(회장 오은규)는 지난 1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회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서귀포시 4-H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소통 마인드셋 특강, 스피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역량을 높이고, 회원간의 소통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오은규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청년농업들이 농업 환경에서 필요한 소통 능력과 스피치 역량을 기르고, 회원들 간의 유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1. 3.
삼다일보 9

(제민일보: 2026년 11월 3일)

○ [독자기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14면

독자기고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데서 시작하는 청년농업인



이 봉 실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다. 재배기술을 익히는 일뿐 아니라 농지를 마련하고 판로를 찾으며 지역의 농업인과 관계를 맺는 일도 필요하다. 영농을 시작한 뒤에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다. 그때마다 혼자 답을 찾아야 한다면 농업을 이어가는 일은 더욱 버겁다.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기술을 배우는 기회와 함께 비슷한 고민을 가진 동료와 경험을 나누고, 지역 안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필요하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와 어려움을 다시 나누는 과정은 배움을 실제 영농에 활용하는 힘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이 함께 배우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이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현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 '청년농업인 스터디그룹'도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 이어지고 있다. 지역축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으며 활용 가능한 농업체험 교구도 개발했다. 청년농업인이 배움의 참여자를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농업을 알리는 주체로 성장한 사례다.

청년농업인의 정착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할 때 힘을 얻는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교육과 교류를 연결하며 이들이 지역농업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꾸준히 뒷받침해야 한다.

청년농업인이 지역 안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일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11. 3.
제민일보 14

<동부농업기술센터 안덕욱장팀장>

(제주일보: 2026년 11월 3일)

○ 농업농촌소식-9면

■ 농업농촌소식

▲만감류

△온도관리: 외기온도로 관리하며 환기 철저

※ 주간·야간 온도차가 크면 과일에 이슬이 맺히면서 부피과 등 발생 가능성 높음

△물관리: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관수량 조절

▲당근

△양분관리: (3차) 파종 후 70일 경 요소 9kg/10a 시비

△병해충 관리: 무름병, 세균잎마름병, 검은잎마름병 등 예찰·방제

11. 3.
제주일보 9

(한라일보: 2026년 11월 3일)

○ 주간 농업농촌소식-6면

주간 농업농촌소식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노지감귤

○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 중

– 출하 시 품질기준(당도 8.5°Bx 이상) 준수

○ 수확 7~15일 전까지 부패방지제 살포(농약별 안전사용기준 준수)

※ 비가 내릴 경우 3일 이상 건조 후 수확하며, 수확 후 3일 정도 예조

만감류

○ 온도관리: 외기온도로 관리하며 환기 철저

※ 주간·야간 온도차가 크면 과일에 이슬이 맺히면서 부피과 등 발생 가능성 높음

○ 물관리: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관수량 조절

당근

○ 양분관리: (3차) 파종 후 70일 경 요소 9kg/10a 시비

○ 병해충 관리: 무름병, 세균잎마름병, 검은잎마름병 등 예찰·방제

양채류

○ 병해충 관리: (양배추) 무름병·나방류 등, (브로콜리) 검은썩음병, 검은무늬병 등, (비트) 갈색점무늬병 등 예찰·방제

콩

○ 수확시기: 잎이 누렇게되어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 변색될 시

– 기계수확 시 성숙 후 15일 후(개화 후 60일 경) 줄기와 꼬투리 마를 때

※ 착협고 위치가 낮을 경우에는 손으로 수확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수확 후 철저한 건조·정선 필요

월동무

○ 2차 양분관리(10a 기준): 1차 시비 후 15일경 요소 11kg, 염화가리 8kg시비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및 벼룩잎벌레 등 예찰 방제

가을감자

○ 병해충 관리: 나방류 등 해충 예찰·방제

○ 최근 잦은 비로 배수로 정비 및 무름병, 역병 방제 필요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11. 3. 한라일보 6

(제주매일: 2026년 11월 3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8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11. 3.
제주매일 8

(삼다일보: 2026년 11월 3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13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기간=11월 19일(목)~23일(월)/5일간

▲장소=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참가 인원=6만5000명 내외

▲행사성격=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주최/주관=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주요 프로그램

△공식 행사=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술·비즈니스=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경연 행사=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문화·공연=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체험행사=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빅 이벤트='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감귤품장 경품 체험

▲입장권 안내

△현장 구매=2000원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1000원

△무료 입장=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문의=㈔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 732-3350.

11. 3.
삼다일보 13

(한라일보: 2026년 11월 3일)

❍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6면

「2026년 제주감귤박람회」 행사 알림

□ 추진개요

○ 기　간: 2026. 11. 19.(목) ~ 11. 23.(월) / 5일간

○ 장　소: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일원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 참가인원: 6.5만 명 내외

○ 행사성격: 감귤산업의 현재와 미래, 산업·학술·문화·체험형 융복합 박람회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 주요프로그램

○ 공식행사: 개막식, 폐막식, 술 대회 준비위원회 발족식

○ 학술·비즈니스: 감귤학회, 신품종 감귤 강연, 바이어상담회, 농업부분 온실가스감축사업 설명회, 라이브커머스

○ 경연행사: 청년농업인혁신사례발표, 어린이사생대회, 감귤디저트 경연

○ 문화·공연: 귤빛가요제, 열린무대, 귤빛버스킹

○ 체험행사: 감귤따기, 감귤청·잼 만들기, 감귤꽃이 피었습니다. 감귤젠가 등

○ 빅 이벤트: "감귤왓! No.1 감귤을 찾아라" - 감귤품장 경품 체험

□ 입장권안내

○ 현장구매: 2,000원

○ 사전예약 및 제주도민: 1,000원

○ 무료입장: 국가(독립)유공자, 만 13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른 등

□ 문의

○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 제주감귤박람회 운영사무국(732-3380)

11. 3.
한라일보 6

(제주일보: 2026년 11월 3일)

○ 우수한 맛과 품질 제주 노지감귤 알린다-3면

우수한 맛과 품질 제주 노지감귤 알린다

제주감귤연합회·농협제주본부, 서울 등서 홍보전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본부가 서울 도심에서 제주산 노지감귤 홍보에 나섰다.

제주감귤연합회(회장 백성익 효돈농협 조합장)와 농협제주본부(본부장 이춘협)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노지감귤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타임스퀘어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독 이벤트와 할로윈 포토존을 운영하고, 제주산 노지감귤 할인 판매도 진행했다.

두 기관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해 '도심 속 찾아가는 홍보·판매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홍보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26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서도 제주산 노지감귤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백성익 회장은 "도심을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 고품질 제주감귤의 우수한 맛과 뛰어난 품질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제주본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제주산 노지감귤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제민일보: 2026년 11월 3일)

○ 노지감귤 생산 증가 전망에 선제 대응-3면

노지감귤 생산 증가 전망에 선제 대응

44만여t 예상 전년대비 7.8%↑

도지사 주재 유관기관 회의

품질 관리·분산 출하 등 논의

조생·극조생 시기 조절 필요

올해 제주 노지감귤이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이한 가운데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도가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2일 도청 탐라홀에서 위성곤 제주도지사 주재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품질관리 강화와 출하 조절, 소비촉진 확대 등 수급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산량은 44만3300t으로 지난해 41만965t보다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1. 3.
제민일보 3

지 누적 출하량은 2만7037t으로 올해 생산 예상량의 6.1%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기준 노지감귤 평균 누계가격은 5kg당 9778원으로 평년 가격인 9556원보다 4% 높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97원보다 5%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가락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과 가격이 지난해보다 38%, 배는 27%가 하락하는 등 과일시장 전반의 침체와 맞물려 노지감귤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현재 공급 과잉과 저품질 감귤 유통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엄격한 품질 선별을 통해 고품질 감귤을 출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잦은 비로 인한 품질 편차가 소비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선과 과정에서 저품질 감귤을 철저히 걸러내고 극조생 감귤과 일반 조생감귤의 출하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농가와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수확 전 품질 관리와 선과장 품질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상품 외 감귤 유통 차단과 기상·시장 상황에 따른 분산 출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당부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농업인의 땀과 노력이 정당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논의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농가가 안심하고 감귤을 출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 지사는 "상품 외 감귤 유통으로 성실하게 품질을 관리해 온 농가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선별과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제주 감귤을 공급하는 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김두영 기자

(삼다일보: 2026년 11월 3일)

○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장터서 제주산 우수성 입증-9면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장터서 제주산 우수성 입증



이성웅씨. 김성은씨. 임보순씨. 기민욱씨. 김병수씨.

국내 최대 규모 농산물 품평회인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장터'에서 제주 농산물의 우수성이 확인됐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문병철)는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하나로마트 농협 울산유통센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에서 이성웅씨(65·도순동)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제주농업인 총 5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은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120개 시·군 농업인들이 ▲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특별화훼 등 5개 부문에 각 지역의 400여 개의 우수 농산물을 출품, 전국 농산물 중 으뜸농산물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을 벌였다.

제주에서는 과실류 부문에 레드키위를 출품한 이성웅씨가 부문별 대회 최고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실류)을 수상했다.

딸기잼을 출품한 김성은씨(53·한경면)는 농촌진흥청장상(특별화훼), 메밀가루를 출품한 임보순씨(56·조천읍)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상(특별화훼)을 받았다.

또 파파야를 출품한 기민욱씨(30·대정읍)는 농협중앙회장상(과실류), 건취나물을 출품한 김병수씨(54·애월읍)는 한농연중앙연합회장상(특작류)을 수상했다.

11.3 삼다일보 9

(한라일보: 2026년 11월 3일)

○ 탐스럽게 익어가는 호박-5면



탐스럽게 익어가는 호박 2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농경지에서 호박들이 가을볕을 받으며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일보: 2026년 11월 3일)

○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0면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2028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염원하며



나의 의견

이 석 근

㈔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회장

새벽이 밝아오면 제주 농업인은 밭으로 향한다. 거센 바람에 흔들린 나무를 살피고, 귤잎에 맺힌 이슬을 털며 하루를 시작한다. 돌 하나를 골라내고 묘목 한 그루를 심는 일에는 가족의 생계와 고향의 내일이 담겨 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나는 지금 간절한 꿈 하나를 품는다. 2028년 G20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려,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의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에 닿는 꿈이다.

제주는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쌓아온 섬이다.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치러온 경험, 회의·숙박시설과 관광 기반, 평화의 섬이 지닌 상징성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도민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제주만의 품격 있는 정상회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의 풍경과 함께 그 풍경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도 만나기를 바란다.

검은 돌담 너머의 감귤밭, 겨울바람을 견디는 푸른 채소, 바다와 목장에서 길러낸 먹거리에는 제주 농어업인의 부지런한 손길이 배어 있다. 오늘의 아름다운 제주는 그 손길이 오랜 세월 가꾸어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제주 농업은 살아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 가뭄 앞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고, 폭우와 강풍 속 수확의 무게를 아는 농업인의 경험에는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지혜가 담겨 있다. 세계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을 지켜온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도 닿기를 소망한다.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면 [illegible] 환영 행사의 식탁부터 제주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담아내자. 감귤 한 알에도 생산자의 정성과 재배 이야기를 곁들이고, 기념품에도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자. 철저한 품질·위생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해, 제주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행사 이후의 소비와 수출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오래도록 이어질 인연이다. 제주에서 맛본 감귤이 좋아 다시 찾고, 제주 농촌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여 우리 농산물을 선택하는 인연이다. 그 인연이 쌓일 때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가 열리고, 청년에게는 농촌에서 미래를 꿈꿀 힘이 생길 것이다.

유치를 향한 열망만큼 준비도 치밀해야 한다. 공항과 교통, 숙박, 경호와 안전, 의료와 통역 등 분야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대책과 함께 지역 농어업인·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조달 체계도 갖춰야 한다.

정상회의의 성과가 마을과 골목, 농가의 살림에까지 닿도록 지금부터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 농촌지도자들도 그 준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안전한 농작업과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 일,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일, 제주를 찾는 손님을 따뜻하게 맞는 일부터 성실히 실천하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모여 제주 유치의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에는 어려울 때 서로 일손을 보태온 수눌음의 정신이 있다. 그 마음으로 전 도민이 뜻을 모으고 국민의 응원을 구하자. 제주가 가진 강점을 자신 있게 알리며, 부족한 부분은 함께 채워나가자.

이렇듯 우리가 가꿔온 제주가 가득 담긴 제주에서 2028년, 세계 정상들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제주의 정낭을 활짝 열고, 농업인의 땀과 도민의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2028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11. 3.
제주일보 10

(제주매일: 2026년 11월 3일)

○ [기고]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14면

[기고]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사)한국농촌지도자
제주시연합회 회장



이석근

새벽이 밝아오면 제주 농업인은 밭으로 향한다. 거센 바람에 흔들린 나무를 살피고 귤잎에 맺힌 이슬을 털며 하루를 시작한다.

돌 하나를 골라내고 묘목 한 그루를 심는 일에는 가족의 생계와 고향의 내일이 함께 담겨 있다.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지금 간절한 꿈 하나를 품는다. 2028년 G20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려,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의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에 닿는 꿈이다.

제주는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쌓아온 섬이다.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치러온 경험, 회의 · 숙박시설과 관광 기반, 평화의 섬이 지닌 상징성은 제주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기에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도민의 마음이 더해진다면 제주만의 품격 있는 정상회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검은 돌담 너머의 감귤밭, 겨울바람을 견디는 푸른 채소, 바다와 목장에서 길러낸 먹거리에는 제주 농어업인의 부지런한 손길이 배어 있다. 오늘의 아름다운 제주는 그 손길이 오랜 세월 가꾸어온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정상회의가 제주에서 열린다면 공식 만찬 행사의 식탁부터 제주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담아내자. 감귤 한 알에도 생산자의 정성과 재배 이야기를 곁들이고 기념품에도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자. 철저한 품질 · 위생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을 준비해 제주 먹거리에 대한 신뢰가 행사 이후의 소비와 수출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치를 향한 열망만큼 준비도 치밀해야 한다. 공항과 교통, 숙박, 경호와 안전, 의료와 통역 등 분야별 과제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대책과 함께 지역 농어업인 ·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공급 · 조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정상회의의 성과가 마을과 골목, 농가의 살림에까지 닿도록 지금부터 길을 열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모여 제주 유치의 든든한 힘이 되기를 바란다. 제주에는 어려울 때 서로 일손을 보태온 수눌음 정신이 있다.

나는 2028년,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에서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 식탁에 우리 농업인이 정성껏 키운 먹거리가 오르고 제주를 떠나는 손님들의 기억 속에 이 땅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남기를 바란다.

농업인의 굽은 등 위에 쌓인 세월과 거친 손바닥에 밴 노력이 세계와 만나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흙을 지키는 일이 내일을 지키는 일임을 믿는다. 우리가 가꾸어온 제주에서 세계가 함께 살아갈 미래를 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제주의 정낭을 활짝 열고 농업인의 땀과 도민의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2028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11.3.
제주매일 14